

'참교육' 실현 위한 매서운 현장보고

교단 40년의 비망록 「교육일기」 펴낸 李五德씨

글쓰기교육을 통한 참교육운동의 일환된 실천으로 잘 알려진 李五德씨(64)가 최근 교직생활 틈틈이 적어두었던 일기를 한데 모아 정리해 책으로 공개했다. 이달 초 한길사에서 출간된 전2권의 「이오덕교육일기」가 그것으로, 이 책은 한 양심적인 교육자의 꿈꾸는 교단 생활 비망록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육현장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보고서가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그것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교육현장의 치부들을 낱말이 드러냄으로써,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 제거돼야 할 장애요인은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나타내 보인다. 참교육을 위해 애쓰는 교사들의 노력과 그것을 방해하고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반 교육여건의 부딪침, 그속에서 겪는 좌절과 분노, 절망과 회의 등이 「교육일기」는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아이들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

“제가 남들보다 딱이 교육을 잘했다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은, 제대로 교육은 못하고 고민만 하던 부끄러운 실패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저로서는 이런 기록으로나마 우리 교육현장의 실상과 문제점들이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랄 뿐이죠.”

1962년부터 1972년까지, 그 스스로의 표현을 따르면 “과란 많은 내 43년의 교직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괴로워하고 울분에 넘치고 몸부림치던 시절”의 일기를 책으로 펴내면서 이오덕씨가 밝혀내고자 한 것은 세 가지.

그 첫째가, 교육행정이나 장학행정이란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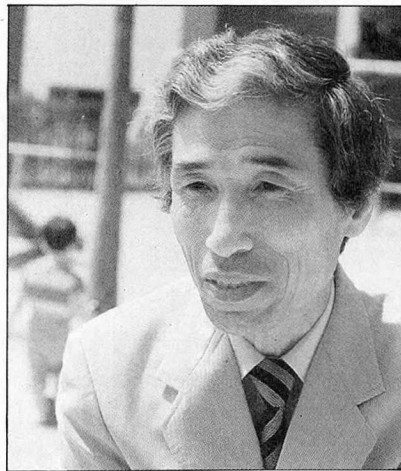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냐는 점이다. 「교육일기」를 통해 이오덕씨는, 그 행정의 정체를 고발하고 그것이 우리의 교육현장을 얼마나 참담한 꼴로 황폐화시키는가를 증언한다.

“제 생각으론 교육행정이 교육의 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의 근본입니다. 제가 처음 교직에 들어섰던 40년전이나 지금이나, 또 도시학교나 시골학교나간에 사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철학과 제정신을 갖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이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국의 교육이 행정의 도구로 전락했다고까지 단언했는데, 그같은 단언이 그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육을 위한 행정' 아닌 '행정을 위한 교육'의 실례들이 「교육일기」 곳곳에서 발견된다. 가령, 밤마다 아이들의 책임의 소리가 마을의 골목에 울려 퍼지도록 하라는 관료적 발상의 전시행정적 장학 지도를 받으며 느끼는, 이오덕씨의 분노를 넘어서 허탈감을 우리는 공유할 수밖에 없게 된다.

둘째는, 그같은 교육행정이 야기시킨 비인간적 교육구조 속에서 한국의 교사들이 어떻게 부대끼며 병들어가는지, 그리고 그들이 맡아 가르치는 아이들은 또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하는 문제다. 이오덕씨는 “분단 44년의 역사 속에서 가슴에 번쩍번쩍 자랑하는 훈장 타는 교육자는 많은데 어찌서 위대한 교육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못했는가”라고 되묻는다.

“일차적으로는 교육행정이 교사들을 질식시키고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그런 행정에 길들여져 제 병에 대한 자기



이오덕씨.

반성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같은 교사로서 교사들에게 느끼는 실망과 배신감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 아이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아이들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일기」는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을 하려고 애쓴” 한 교육자의 절망의 고백록으로 읽힐 수도 있다. 학교돈으로 술마실 궁리에만 바쁜 교장, 아이들 교육은 뒷전인 채 사소한 이익다툼과 보신에만 급급한 교사들에게 절망한 이오덕씨는 어느날의 일기에 “여기도 내가 살 곳은 아닙니다. 나는 또 한마리 산새가 되어, 어느 먼 하늘을 날아갈 꿈을 꾸고 있습니다”라는 처연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참교육 위한 여건 만드는 교육운동

그러나, 이오덕씨가 「교육일기」를 펴낸 보다

교단 40년의 현장체험 공개를 통해

이오덕씨는 참교육 실천을 방해하는

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낱말이

파헤치고 있다. 한 양심있는 교육자가

교육행정 앞에서 겪는

분노와 좌절을 증언함으로써

교육현장의 가장 생생하고

구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해내고 있다.

큰 이유는 그같은 현장체험의 공개를 통해 바람직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모색해보는 데 있다. 그런 모색에 「교육일기」가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때 비로소 '일기를 책으로 낸 일의 쓸쓸함'이 가셔질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런 그가 참교육 실현을 위해 강조하는 것이 이른바 '교육운동'이다. 「교육일기」속의 솔한 좌절의 기록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선 '나혼자만의 참된 교육'이란 이미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맡은 학급의 교실 단위에서나마 참교육을 실현하려는 교사의 노력은 교장이나 교감의 물이해로 무산되고, 교장의 경우에도 그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울퉁은 교육철학을 갖고 있다고 해도 '교장 위의' 행정체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교육일기」는 극명하게 보여준다.

“결국 교육운동만이 우리 교육을 살리는

합리적인 출판문화를 일구는 두 총서

출판·편집총서

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유네스코 편/白承吉·朴觀喜 옮김

2 출판의 진실

스탠리 언윈/韓永鐸 옮김

3 책의 혁명

로베르 에스까르베/林文榮 옮김

4 책 만들기

마살리/鄭丙圭 옮김

5 잡지 편집의 이론과 실제

高廷基 지음

6 책은 만인의 것

출판제작 18년동안의 기록/李五德 지음

7 뉴미디어 용어사전

金承萬 편지

8 출판회계

朴永緒 지음

9 편집자의 세계

高廷基 편지

10 출판경영론

H·S 메일리 Jr./全泳杓·吳慶鎬 옮김

11 교정기술 (실습지·모범답안지를 합철한 것)

편집부 편

12 현대출판학원론

朴有鳳·蔡白 공저 7,000원

차례

제 1 부 출판학 총론

제 1장 출판학의 본질과 특성

제 2장 출판의 본질과 기능

제 2 부 출판의 역사

제 1장 문자문화의 발전

제 2장 도시의 역사

제 3장 잡지의 역사

제 3 부 출판학각론

제 1장 출판과 언론자유

제 2장 출판문화론

제 3장 출판산업론

제 4장 출판독자론

普成社 서울·마포구 구수동 21-1 ☎ 719-0784

글 더 잘쓰기 총서

1 글의 비밀

心理言語學者 金炳元 지음

2 논픽션 쓰는 법

헤어즈 B. 제이콥스/金炳元 옮김

3 소설의 방법과 인식

伊藤整/李基炯 옮김

4 추리소설 쓰는 법

미국추리소설작가협회/高廷基 옮김

5 동화 쓰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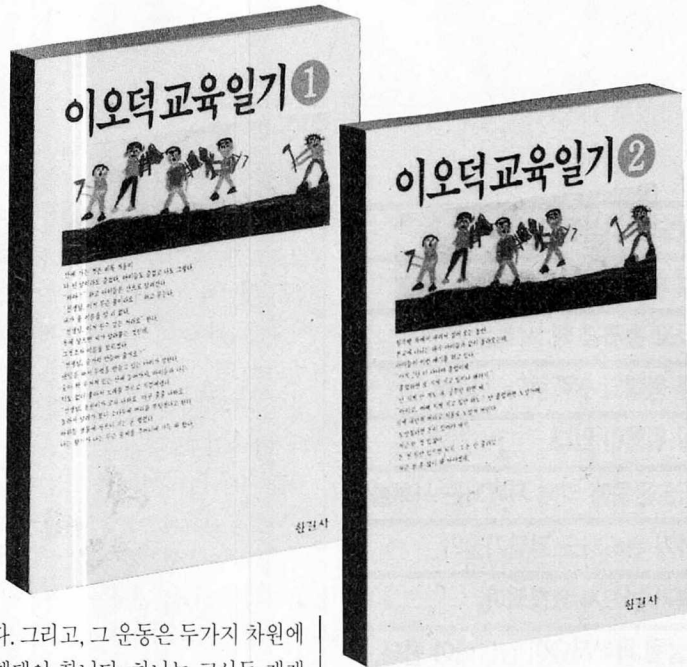
리 와인담/李相桴 옮김

6 그림책 쓰는 법

엘렌 E.M 로버츠/金正 옮김

7 주부작가로서 성공하는 법

엘렌 E. 심버그/高廷기 옮김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운동은 두가지 차원에서 동시진행돼야 합니다. 하나는 교사들 개개인의 인간교육을 해야겠다는 자각과 실천운동, 또 하나는 그런 자각의 실천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운동입니다. 요즈음의 교육운동은 흔히 후자에 더 큰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교사들의 자기반성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교사들이 병들어 있었거든요. 교육은 여의도광장이나 전교협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병을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의 병 또한 함께 치유돼야 한다는 것이 이오덕씨의 한결같은 지론이다. 교육행정에 관한 한 그는 거의 환원론적이다. 모든 교육문제의 연원은 교육행정에 있고 또 그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따라서 교육행정을 체제두고 다른 문제를 우선적으로 부각하는 태도는 경계돼야 한다는 것. 예컨대, 학교재

정이나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강조가 교육행정의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 정도라면, 그것은 심각한 왜곡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한다.

“물론, 좋은 책걸상과 적정인원의 학교 편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10명의 아이를 훌륭한 시설 속에서 가르치면서 교육행정의 간섭을 받느니, 차라리 100명의 아이를 열악한 시설 속에서 가르치지만 교육행정으로부터는 자유로운 편이 훨씬 낫습니다. 문제는 책걸상의 좋나쁨이나 학생수의 많고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교육행정의 옳고 그름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의미에서 이오덕씨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괜찮아졌지’라든가 ‘시골학교가 도시보다는 낫겠지’ 하는 식의 생각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군대식 통제와 관료적 지지 위주의 교육행정이 분단 이후의 우리 교육현장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예와 지금,

시골과 도시의 구별은 무의미하며, 또 있을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그런 점에서 시간적으로는 20여년 전, 공간적으로는 경북일원의 농촌학교들에서의 교사생활을 담은 「교육일기」는 예와 다름없는 현재적 의미와 지역적 특수성에 구애받지 않는 대표성을 확보한다. 역설적으로는 「교육일기」가 확보하고 있는 그같은 현재적 의미와 대표성 자체가 우리 교육의 ‘불행한 특징’일 수도 있을 것이다.

글쓰기교육과 인간교육

「교육일기」에서 나타나는 참교육, 인간교육에 대한 이오덕씨의 관심과 열의는 한편으로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다시피 한 ‘글쓰기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된다. 그에게 글쓰기교육은 인간교육과 거의 동의어로서, 국어과의 한 분과가 아니라 모든 교과목을 통괄하고 하나로 있는 교육의 핵심으로 이해된다. “좋은 글을 쓴다는 것은 곧 좋은 생활을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글을 잘 쓰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쓰는 결코 좋은 글이 나올 수 없다.” 그는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정확한 ‘생활글’을 제일로 치며, 선부분 흥내와 꾸밈을 조장하는 걸치레 뿐인 ‘글짓기’는 배격한다.

“문학이니 뭐니 해서 민주고 인간이고 찾다가는 죽도 밥도 안되지”라는 장학사의 점잖은 ‘충고’를 들으면서, 또 이른바 백일장 행사에서 ‘교육이 아닌 정치’를 발견하면서 이오덕씨가 전개해 온 글쓰기교육의 핵심은 결국 그것이 인간교육의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데 있다.

“먼저 정직하게 쓰게 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서로 돌려보며 토론하게 함으로써, 글로 나타

난 자신의 생활과 생각에 무슨 문제가 없느냐를 반성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글짓기선수’를 양성해서 백일장에 당선시키고, 특정 신문이나 잡지에 특정 아이의 글이 실리게 하는 것이 글쓰기교육은 아닙니다.”

이런 글쓰기교육과 그를 통한 인간교육의 실현에 이오덕씨는 1944년 이후 43년간에 이르는 교직생활의 전부를 바쳐 왔다. ‘꼭 자의만은 아닌’ 1986년의 퇴직 이후에도 그같은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오히려, 어디에 매인 몸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치열하다.

그 치열함을 그는 요즘 우리말과 글을 바로 잡는 일에 쏟아붓고 있다. 일본식 구문과 단어, 서구어의 번역체 문장 등으로 찌들고 망가진 우리말과 글의 원형을 복원하고 널리 알리는 일에 이오덕씨의 마음은 벌써부터 조급하다. 그것이 한두해 사이에 금방 이뤄질 일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도 잘 알기 때문이다.

온통 책으로 둘러싸인 20평 남짓한 과원의 한 아파트에서 그는 마치 수도승처럼 청정하게 산다. 가끔 강연에도 불려나가고 ‘거절 못할 청탁원고’도 써 주면서, ‘인간보다는 풀이나 꽃을 다루는 학문이 속편하겠단’ 아버지의 권유를 좇아 식물학을 전공하는 대학 4학년의 아들과 함께 식사나 빨래도 직접 해결하면서 산다.

그런 이오덕씨에게서 우리는, 그의 글들이 드러내는 매서운 정신의 높이가 질박한 생활속에서 잘 갈무리된, 우리시대의 師表를 발견할 수 있다.

—강철주 기자

국내 최초의 전문편집인력양성!

편집디자인



출판
 단행본 전집류 잡지
 교양도서 참고서 사전류
 교과서

신문
 일간신문 주간신문 월간신문

잡지
 교양지 전문지 종합잡지
 정기간행물 사보

1기생 96% 취업확정
 2기생 취업요청 쇄도

● 취업보도실 : 671-8317

이오덕교육일기인학원

☎ 672-1841, 672-1842

전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문래동 방향 150m